

보내주게 감사해요

박영숙 이사장님 발간사

2004 2월 22일

[한국여성재단 · 교보생명 공동협력사업 보고서: 2004 짧은 여행, 긴 호흡 여성공익 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2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사회공헌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 외국인여성노동자 모성보호 교육사업,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빔프로젝터 대여사업을 진행하였고, 2004년에는 여성공익활동가들의 재충전 프로그램인 '2004 짧은 여행, 긴 호흡 여성공익활동가 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후원함으로써 105개 단체 222명의 여성공익활동가들이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여성리더로서의 자기정체성 확립과 여성공익활동에 대한 꿈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2004년 교보생명과 한국여성재단의 대표적인 공동협력사업으로 소개되고 있는 짧은 여행, 긴 호흡 지원사업은 2003년 여성공익활동의 전망을 진단하면서 소진된 여성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기획된 재단 자체 기획사업으로 처음 진행되었던 것을, 실질적인 여성공익활동의 발전을 위해 매우 긴요한 지원사업이었다는 재단 파트너기관들의 긍정적인 사후 평가를 근간으로 교보생명에서 사업비 전액 쾌척이라는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공익활동 저변 확대라는 사회적 대의를 함께 공유한 교보생명, 여성NGO 및 여성복지기관, 한국여성재단이 각 부문의 미션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교보생명은 재원을, 여성NGO 및 여성복지기관은 여성공익 직접사업을, 재단은 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낸 기업 · 재단 · NGO 각 부문의 파트너십의 모범적인 사례이자 훌륭한 성과물인 것입니다. 또한 그간 기업 사회공헌활동에서 쉽게 지원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의 확장이며,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점차 시민사회단체를 단순 지원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을 넘어서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지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시민사회의 상생의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매우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매년 1년 단위의 사후 평가를 통해 향후 5년간 여성공익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결연사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을 후원해줄 것을 약정해주고 있는데,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교보생명의 여성공익발전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박봉과 격무에도 헌신적으로 여성공익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 실무자분들이 재충전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얻음으로써 활동하는데 큰 힘을 얻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평등하고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 사는 지혜와 그 실천을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기업과 단체들의 소통과 만남의 중간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훌륭한 성과물로 일구어낸 교보생명과 파트너 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